

2010. 11. 30 (Vol. 8)

2010년 10월 관광동향분석

Korea Tourism Statistics

01 방한외래관광객



02 국민해외관광객



03 관광수지



04 세부 통계분석



05 서비스업 생산지수



06 최신 참고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01

방한외래관광객

- 10월 방한외래관광객 872,550명, 전년동기대비 18.3% 증가
- 2010년 10월까지 방한외래관광객 누계 약 738만 명, 전년동기대비 13.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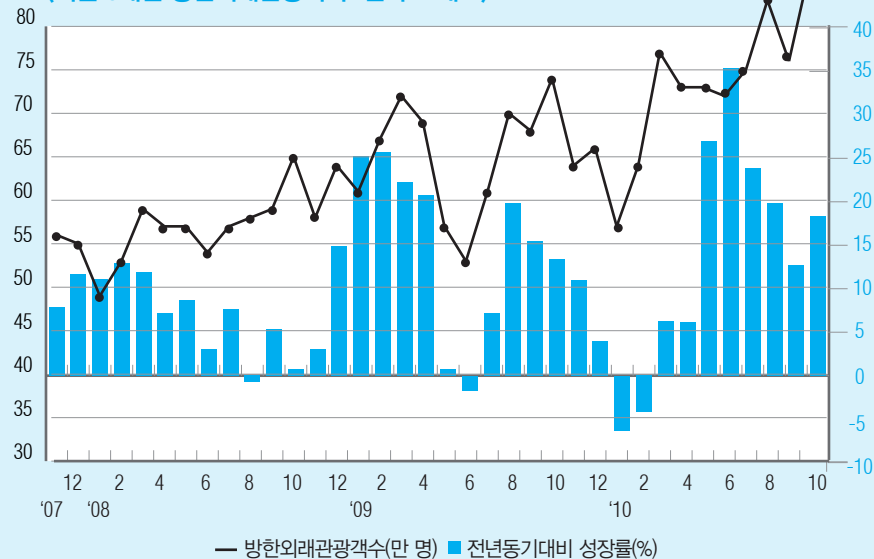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방한외래관광객	증감률 *
2005년	6,022,752	3.5
2006년	6,155,046	2.2
2007년	6,448,240	4.8
2008년	6,890,841	6.9
2009년	7,817,533	13.4
2010년 10월	872,550	18.3
2010년 누계	7,382,021	13.9

주 | 2009년 이후는 잠정치, * 전년동기대비

〈최근 3개년 방한외래관광객 수 변화 그래프〉



주요 국가별 동향

- 일본 방한외래관광객 2010년 누계 약 252만 명, 전년동기대비 1.7% 감소
- 2010년 10월 중국 방한외래관광객 전년동기대비 30.6% 증가

단위: 천 명, %

구분	일본	중국	미국	대만	홍콩	필리핀	러시아
2005년	2,440(-0.1)	710(13.2)	531(3.8)	351(15.3)	166(7.2)	223(4.3)	144(-8.3)
2006년	2,339(-4.1)	897(26.3)	556(4.7)	338(-3.8)	143(-14.1)	248(11.5)	145(0.5)
2007년	2,236(-4.4)	1,069(19.2)	587(5.7)	335(-0.9)	140(-1.9)	264(6.3)	140(-2.9)
2008년	2,378(6.4)	1,168(9.3)	610(3.9)	320(-4.5)	160(14.4)	277(4.9)	136(-2.9)
2009년	3,053(28.4)	1,342(14.9)	611(0.2)	380(18.9)	216(34.6)	272(-1.7)	137(0.5)
2010년 10월	303(11.7)	181(30.6)	64(7.3)	40(21.2)	22(0.6)	26(11.7)	16(60.6)
2010년 누계	2,518(-1.7)	1,620(42.3)	559(7.1)	347(7.1)	188(6.1)	254(11.4)	126(16.2)

주 | 2009년 이후는 잠정치,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주요 대륙별 동향

- 아시아주 방한외래관광객 2010년 누계 약 572만 명, 전년동기대비 13.0% 증가
- 전년 10월 대비 아시아주(18.5%), 구주(23.8%)의 증가세가 두드러짐

단위: 천 명, %

구분	아시아주	미주	구주	대양주	아프리카주
2005년	4,488(4.1)	640(4.8)	509(2.2)	85(9.3)	18(1.5)
2006년	4,605(2.6)	673(5.2)	535(5.1)	92(7.4)	21(16.1)
2007년	4,747(3.1)	716(6.4)	559(4.6)	108(17.8)	24(12.0)
2008년	5,092(7.3)	745(3.9)	592(5.9)	128(18.3)	26(10.9)
2009년	6,075(19.3)	752(1.0)	598(0.9)	130(2.3)	29(8.7)
2010년 10월	676(18.5)	80(7.9)	69(23.8)	14(5.1)	3(8.1)
2010년 누계	5,721(13.0)	696(8.5)	546(9.6)	125(17.7)	29(18.5)

주 | 2009년 이후는 잠정치,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02

국민해외관광객

- 10월 국민해외관광객은 1,055,581명, 전년동기대비 47.7% 증가
- 2010년 10월까지 국민해외관광객 누계 약 1,046만 명, 전년동기대비 33.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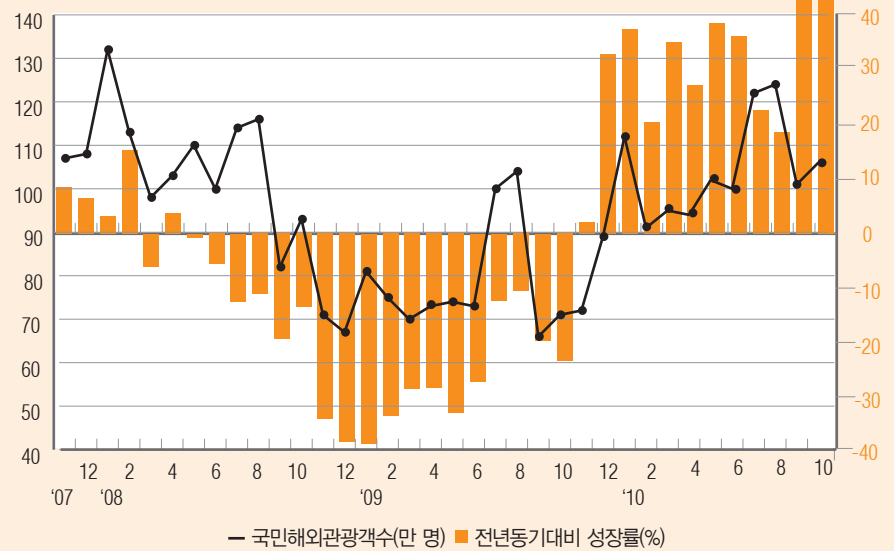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국민해외관광객	증감률 *
2005년	10,080,143	14.2
2006년	11,609,879	15.2
2007년	13,324,977	14.8
2008년	11,996,094	-10.0
2009년	9,494,111	-20.9
2010년 10월	1,055,581	47.7
2010년 누계	10,462,034	33.9

주 | 2009년 이후는 잠정치, * 전년동기대비

〈최근 3개년 국민해외관광객 수 변화 그래프〉



03

관광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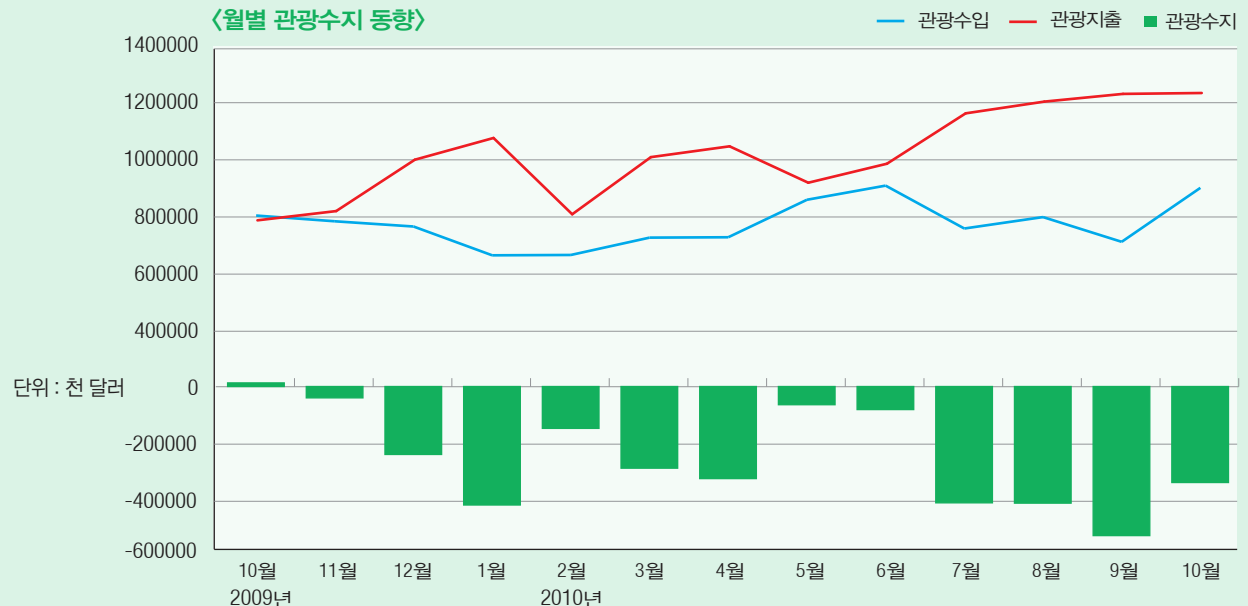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 관광수입	*인당 관광수입(\$)	↑ 관광지출	*인당 관광지출(\$)	▶ 관광수지	▶ 유학수지
2005년	5,793 (-4.3)	962	12,025 (22.0)	1,193	-6,232	-3,368
2006년	5,760 (-0.6)	936	14,338 (19.2)	1,235	-8,576	-4,487
2007년	6,094 (5.8)	945	16,950 (18.2)	1,272	-10,857	-4,980
2008년	9,719 (59.5)	1,410	14,581 (-14.0)	1,215	-4,862	-4,430
2009년	9,386 (-3.4)	1,201	9,331 (-36.0)	983	56	-3,943
2010년 10월	896 (12.1)	1,027	1,232 (56.7)	1,167	-336	-289
2010년 누계	7,675 (-2.2)	1,045	10,662 (41.9)	1,021	-2,988	-3,694

주 | 2009년 이후는 잠정치,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인당 관광수입 = 관광수입/방한 외래관광객, *인당 관광지출 = 관광지출/국민 해외관광객

〈월별 관광수지 동향〉



04

1) 입국자 교차분석

세부 통계분석

일본, 중국, 미국 등 주요국 외국인 입국자에 대하여 연령별, 성별, 목적별, 교통수단별 비중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cross tabulation)을 실시



- **연령별**로 보면, 일본과 미국은 상대적으로 50대 이상의 방문자가 많고 40대 이하의 방문자는 기대빈도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며 중국은 50대 이상의 방문자가 적은 대신 40대 이하의 방문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X^2 독립성 검증에 의하면 3개 국가간의 분포사이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X^2 27,875.42, p값 0.000)
 - 분할계수(contingency coefficient)에 의하면 국적과 연령간의 관계는 낮은 정도라 할 수 있음 (분할계수 0.226, p값 0.000) $0 \leq \text{분할계수} \leq 0.81$

국적 · 연령 교차분석표 (10월)

구분		연령							합계	
		10 이하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 이상
일본	관측빈도	3,375	14,449	50,505	52,524	54,982	62,628	46,292	13,524	298,279
	기대빈도	5,058.3	11,164.1	52,733.2	59,277.6	61,498.4	59,517.8	37,589.5	11,440.2	298,279
중국	관측빈도	3,097	4,007	34,201	41,407	39,472	26,236	9,161	2,430	160,011
	기대빈도	2,713.5	5,989.0	28,288.6	31,799.3	32,990.7	31,928.2	20,164.8	6,137.0	160,011
미국	관측빈도	2,306	918	6,806	8,938	12,269	14,422	9,779	3,899	59,337
	기대빈도	1,006.2	2,220.9	10,490.3	11,792.2	12,233.9	11,840.0	7,477.7	2,275.8	59,337
합계	관측빈도	8,778	19,374	91,512	102,869	106,723	103,286	65,232	19,853	517,627
	기대빈도	8,778.0	19,374.0	91,512.0	102,869.0	106,723.0	103,286.0	65,232.0	19,853.0	517,627.0

주1 기대빈도(expected count)는 두변수가 서로 독립적인 경우 기대되는 정도

- **성별**로 보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여성 방문자의 비율이 높고 중국과 미국은 남성 방문자의 비율이 기대빈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X^2 독립성 검증에 의하면 3개 국가간의 분포사이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X^2 7,462.60, p값 0.000)
 - 분할계수에 의하면 국적과 성별간의 관계는 낮은 정도라 할 수 있음 (분할계수 0.119, p값 0.000) $0 \leq \text{분할계수} \leq 0.70$

국적 · 성별 교차분석표 (10월)

구분		성별		합계
		남	여	
일본	관측빈도	127,429	170,850	298,279
	기대빈도	140,702.4	157,576.6	298,279
중국	관측빈도	80,672	79,339	160,011
	기대빈도	75,479.5	84,531.5	160,011
미국	관측빈도	36,071	23,266	59,337
	기대빈도	27,990.1	31,346.9	59,337
합계	관측빈도	244,172	273,455	517,627
	기대빈도	244,172.0	273,455.0	517,627.0

1) 입국자 교차분석

● **목적별**로 보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관광 목적의 방문자가 높고 중국과 미국은 관광 목적의 방문자가 적은 대신 중국은 상용, 유학연수 목적의 방문자 비율이 기대빈도 보다 높으며 미국은 공용 목적의 방문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X^2 독립성 검증에 의하면 3개 국가간의 분포사이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X^2 125,847.70, p값 0.000)
- 분할계수에 의하면 국적과 연령간의 관계는 중간정도라 할 수 있음
(분할계수 0.432, p값 0.000) $0 \leq$ 분할계수 \leq 0.81

국적 · 목적 교차분석표 (10월)

구분		목적					합계
		관광	상용	공용	유학연수	기타	
일본	관측빈도	295,488	1,270	85	199	5,528	302,570
	기대빈도	249,874.8	7,712.9	931.5	1,860.9	42,190.0	302,570
중국	관측빈도	107,237	11,371	374	3,102	59,344	181,428
	기대빈도	149,830.7	4,624.8	558.6	1,115.8	25,298.1	181,428
미국	관측빈도	49,798	1,327	1,228	69	11,534	63,956
	기대빈도	52,817.5	1,630.3	196.9	393.3	8,917.9	63,956
합계	관측빈도	452,523	13,968	1,687	3,370	76,406	547,954
	기대빈도	452,523.0	13,968.0	1,687.0	3,370.0	76,406.0	547,954.0

● **교통수단별**로 보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김포공항, 김해공항의 이용비율이 높고 인천항의 이용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중국은 제주공항, 인천항 이용비율이 높고 김포공항의 이용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미국은 인천공항의 이용비율이 높고 김포공항의 이용비율이 낮으며 지방공항의 이용비율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X^2 독립성 검증에 의하면 3개 국가간의 분포 사이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X^2 145,061.49, p값 0.000)
- 분할계수에 의하면 국적과 연령간의 관계는 중간 정도라 할 수 있음
(분할계수 0.458, p값 0.000) $0 \leq$ 분할계수 \leq 0.81

국적 · 교통수단 교차분석표 (10월)

구분		교통수단						합계	
		인천공항	김해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부산항	인천항		기타
일본	관측빈도	163,043	28,206	75,987	15,064	17,410	360	2,500	302,570
	기대빈도	177,110.0	21,063.0	44,147.5	20,428.0	15,291.6	16,336.8	8,193.3	302,570
중국	관측빈도	101,999	7,805	2,446	21,579	8,187	28,609	10,803	181,428
	기대빈도	106,199.3	12,629.8	26,471.8	12,249.1	9,169.2	9,795.9	4,912.9	181,428
미국	관측빈도	55,704	2,134	1,518	352	2,096	617	1,535	63,956
	기대빈도	37,436.8	4,452.2	9,331.7	4,318.0	3,232.3	3,453.2	1,731.9	63,956
합계	관측빈도	320,746	38,145	79,951	36,995	27,693	29,586	14,838	547,954
	기대빈도	320,746.0	38,145.0	79,951.0	36,995.0	27,693.0	29,586.0	14,838.0	547,954.0

04

2) 내국인 출국 비교

세부 통계분석

- 출국자의 **연령별 분포**를 전년동기대비로 볼 때 2010년 10월에는 청년층과 노년층의 증가율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며, 구성비로 볼 때는 20대~50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 출국자 (10월)

연령별	출국자(명)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구성비(%)
	2009년 10월	2010년 10월		
합계	714,880	1,055,581	47.7	100
0 ~ 10	16,845	32,670	93.9	3.09
11 ~ 20	16,953	38,554	127.4	3.65
21 ~ 30	119,681	160,803	34.4	15.23
31 ~ 40	170,171	231,715	36.2	21.95
41 ~ 50	150,586	205,836	36.7	19.5
51 ~ 60	101,767	177,655	74.6	16.83
61 ~ 70	43,140	91,876	113	8.7
71 ~	11,989	24,232	102.1	2.3
승무원	83,748	92,240	10.1	8.74

- 출국자의 **성별 분포**를 2010년 10월에는 여성의 증가율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며, 구성비로 볼 때는 남성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성별 출국자 (10월)

연령별	출국자(명)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구성비(%)
	2009년 10월	2010년 10월		
합계	714,880	1,055,581	47.7	100
남성	399,385	555,746	39.2	52.65
여성	231,747	407,595	75.9	38.61
승무원	83,748	92,240	10.1	8.74

- 출국자의 **교통수단별 분포**를 전년동기대비로 볼 때 2010년 10월에는 김해공항과 부산항의 증가율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며, 구성비로 볼 때는 인천공항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교통수단별 출국자 (10월)

연령별	출국자(명)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구성비(%)
	2009년 10월	2010년 10월		
합계	714,880	1,055,581	47.7	100
인천공항	551,510	784,925	42.3	74.36
김해공항	55,510	107,458	93.6	10.18
김포공항	44,072	52,632	19.4	4.99
제주공항	2,724	4,004	47	0.38
부산항	20,553	44,032	114.2	4.17
인천항	12,390	17,710	42.9	1.68
기타	28,121	44,820	59.4	4.25

05

서비스업생산지수

(자료원 : 통계청)

- 2010년 10월 관광분야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전년동기대비 모두 증가
- 전년동기대비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11.8%, 여행사업 84.7%, 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 43.8%증가



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 ▶ 2010년 10월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생산지수는 전년동기대비 11.8% 증가
 - 호텔업(14.4%), 여관업(7.8%), 휴양콘도운영업(7.5%) 생산지수 전년동기대비 모두 증가

단위 : 2005년 = 100,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7월	8월	9월	10월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114.2(1.9)	114.8(0.6)	124.3(4.3)	131.6(2.8)	116.6(4.6)	131.9(11.8)
호텔업	120.3(4.5)	128.3(8.0)	138.5(11.6)	142.5(8.9)	134.4(5.4)	154.2(14.4)
여관업	99.2(-4.4)	95.0(-4.2)	97.3(0.1)	103.1(5.0)	100.6(4.4)	107.0(7.8)
휴양콘도 운영업	131.1(13.7)	123.5(-7.6)	142.4(7.4)	152.0(0.3)	99.2(0.0)	123.3(7.5)

주: 불변지수,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나. 여행사업

- ▶ 2010년 10월 여행사업 생산지수는 전년동기대비 84.7% 증가

단위 : 2005년 = 100,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7월	8월	9월	10월
여행사업	125.6(-25.9)	93.5(-32.1)	148.6(35.5)	142.4(33.3)	129.4(87.5)	153.3(84.7)

주: 불변지수,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다.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 2010년 10월 유원지 테마파크 운영업 생산지수는 전년동기대비 43.8% 증가

단위 : 2005년 = 100,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7월	8월	9월	10월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109.5(11.9)	98.0(-11.5)	157.1(4.6)	221.6(1.7)	83.7(40.0)	110.9(43.8)

주: 불변지수,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서비스업생산지수** : 서비스업 전체 및 개별 업종의 생산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개별 업종의 상대적 중요도인 부가가치 기준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국가의 경제정책 및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연구소의 서비스업동향 분석 및 연구자료, GDP 추계자료에 활용

● **불변지수** : 경가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하며, 월별경상매출액 중 가격 변동분을 제거하여 업종의 실질 성장을 분석하는데 이용(디플레이터: 2005년기준 생산자물가지수 및 소비자물가지수)

06

최신참고자료



● 11월 소비자 동향지수 (2010.11.25. 한국은행)

* 2010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여행비 부분)

	2010년											B-A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A)	11월(B)	
여행비	87	89	89	89	90	92	92	91	91	91	91	(-)

● 4/4분기 소비자태도 조사 (2010.11. 18 삼성경제연구소)

* 2010년 4/4분기 소비자태도지수는 전 분기의 52.2보다 0.4p 낮아진 51.8을 기록
 - 생활물가 급등, 지속되는 주택시장 부진, 국내외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소비심리가 2분기 연속 하락세
 * 문화·오락비 소비자태도지수는 기준치(50)보다 낮은 48.2로 조사, 2010년 여전히 상승추세

구분	'09 1/4	'09 2/4	'09 3/4	'09 4/4	'10 1/4	'10 2/4	'10 3/4	'10 4/4
전체 소비자태도지수	41.5	48.9	52.6	53.2	51.9	52.7	52.2	51.8
문화·오락비 소비자태도지수	34.2	42.1	45.4	46.9	44.9	46.5	47.7	48.2

주) 기준치: 50

* 2011년 1/4분기 문화·오락비 지출 계획

구분	응답자수	많이 늘림	조금 늘림	불변	조금 줄임	많이 줄임
전체	1000	0.5	14.6	63.7	19.7	1.5

● 가계의 경제행복도 조사 (4/4분기 부가 조사)

* 2010년 4/4분기 '경제행복도체감지수'는 기준치(50.0)를 하회하는 48.0으로, 가계가 체감하는 경제적 행복감이 1년 전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조사
 * 소득 3분위 이상 고소득층 경우 '소비수준체감지수'가 기준치(50.0)를 상회하며 1년 전보다 소비가 개선되었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조사
 - 소비를 재화와 여가로 구분해볼 때, 모든 계층에서 재화소비보다는 여가 소비를 통해 얻는 경제적 행복감이 더 크게 나타남

● 2010 국가브랜드지수 조사 결과 (2010.11.23 삼성경제연구소)

* 총 50개국 중에서 한국은 전년대비 실제 18위(19→18), 이미지 19위(20→19)로 모두 1단계씩 상승
 * '현대문화(86→91점)', '유명인(75→81점)'의 경우 동계올림픽 5위, 월드컵 축구 16강, 부산국제영화제, K-pop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선전이 주효

실체 순위	종합	전통문화/자연	현대문화	유명인	이미지 순위	종합	전통문화/자연	현대문화	유명인
1	미국(1)	미국(1)	미국(1)	미국(1)	1	독일(5)	그리스(2)	미국(1)	미국(1)
2	독일(2)	프랑스(2)	독일(2)	영국(3)	2	캐나다(8)	이탈리아(3)	프랑스(2)	프랑스(2)
3	영국(4)	독일(6)	일본(3)	러시아(5)	3	일본(2)	이집트(4)	캐나다(8)	영국(3)
4	프랑스(3)	이탈리아(4)	프랑스(5)	프랑스(4)	4	미국(6)	프랑스(1)	독일(6)	독일(5)
5	일본(5)	중국(3)	중국(4)	독일(2)	5	영국(4)	스페인(6)	영국(4)	이탈리아(6)
6	스위스(7)	스페인(5)	영국(6)	일본(6)	6	스위스(7)	중국(19)	이탈리아(3)	러시아(4)
7	호주(9)	호주(8)	스페인(7)	중국(7)	7	프랑스(1)	스위스(9)	일본(5)	중국(10)
8	스웨덴(6)	영국(9)	호주(9)	브라질(9)	8	스웨덴(3)	일본(12)	스페인(7)	일본(7)
9	캐나다(8)	브라질(7)	한국(8)	한국(10)	9	이탈리아(10)	캐나다(13)	호주(10)	스페인(8)
10	네덜란드(10)	캐나다(12)	네덜란드(16)	이탈리아(8)	10	호주(11)	오스트리아(17)	네덜란드(13)	그리스(9)
비고	한국 18 (19)	한국 35 (37)	-	-	비고	한국 19 (20)	한국 33 (34)	한국 21 (24)	한국 27 (27)

주) () 안은 2009년 순위